

연간 미술

469



February 2024

since 1976

0215-0211-5351
633215-27211-5
₩ 15,000

A HOPE AND PEACE TO END ALL HOPE AND PEACE

방콕의 짐 톨슨 아트센터에서는 러쉬디 안와르의 개인전 《모든 이의 희망과 평화를 끝내는 어떤 희망과 평화(A HOPE AND PEACE TO END ALL HOPE AND PEACE)》를 통해 전쟁, 집단학살, 파괴, 이주, 인종청소 트라우마로 점철된 중동지역의 현대사와 이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정치선전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러쉬디 안와르(Rushdi Anwar)는 이라크 할라브자에서 태어난 쿠르드인으로 1998년 호주로 망명하여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친다. 2018년 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에 참여했다. 최근 활동으로는 '현재를 역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아랍에미리트의 15회 샤르자 비엔날레에 초청되었으며, 10회 아르테문디 프라이즈(Arete Mundi Prize) 최종 7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국 카디프 국립미술관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3월 10일까지



《모든 이의 희망과 평화를 끝내는 어떤 희망과 평화》 짐 톨슨 아트센터 전시전경 2023 제공: 작가

러쉬디 안와르, 격렬하게 충돌하며 절규하는 희망과 평화의 몽타주

오신혜 | 미술비평

20세기 초 서구의 식민주의가 야기한 문제들로 중동지역에서는 지난 백 년간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퀴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가 펼쳐졌다. 그 역사의 정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있다.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시기부터 현재의 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에 광범위하게 터전을 잡고 살아온 민족이다. 1,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국가건설에 실패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구의 식민통치를 거치고, 터키와 이라크 정부의 대규모 탄압, 걸프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에 의한 파괴적 점령에 이르기까지 국가 없는 소수민족으로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번 전시는 중동지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을 아카이브 자료, 포토몽타주, 사운드콜라주, 비디오퍼포먼스, 혼합재료, 주조 및 설치조각, 다큐멘터리 영상, 장소특정적 설치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며 날카롭게 비판한다.

1916년, 자의적 경계가 만든 백 년의 그림자

전시를 여는 설치 작품 <검은 금을 얻고자 한다면 그

불타는 연기도 감당해야 한다>(2023)는 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사용한 색상인 '영국 식민지 레드(colonial British red)'와 '프랑스 식민지 블루(colonial French blue)'로 각 벽의 전면을 뒤덮고, 영국인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인 조르주 피코의 초상 사진을 네거티브로 인쇄한 후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따른 중동 분할 지도를 겹쳐 놓았다. 그리고 각 식민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강렬한 벽 가운데에 이슬람 기도매트가 놓여 있다.

현대 중동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비밀조약으로 오스만제국을 무력화하고 석유산지를 소유하여 전쟁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동지역을 거점으로 대륙 진출을 도모했던 두 나라의 욕망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쿠르드족의 건국은 무산되고, 중동지역은 오스만제국 이후 영국 통치령(현 이라크 지역)과 프랑스 통치령(현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으로 분할된다.

자의적으로 그어진 직선 국경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들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러쉬디 안와르는 이슬람 민족을 상징하는 기도매트 위에 1916년에 맺어진



<검은 금을 얻고자 한다면 그 불타는 연기도 감당해야 한다> 전통 방식 수작업으로 제작한 기도매트 위에 자수로 그린 지도, 종이에 디지털프린트, 액자 가변 설치 2023 제공: 작가

영토분할 지도를 인쇄했다. 메카를 향해 무릎 꿇고 매일 평화를 기도했던 민족들은 서구의 식민주의 통치자에 의해 분할되어 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영토 통치권을 가진 주체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비극이 시작된다. 사진 작품 <보이지 않는 경계선>(2023)에는 한 남자가 지도를 하고 있다. 남자가 서 있는 곳은 하우라만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쿠르드족의 터전이다. 쿠르드 족이 오스만제국 시절에 만든 관개수로를 경계로 하여 국경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남자가 서 있는 곳은 이라크이며, 그의 신발이 놓인 곳은 이란이다.

전시장 한가운데에 놓인 작품 <그들은 우리의 세상에 그림자를 가득 드리우고서, 이제 빛을 찾으라 한다>(2023)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황동색 총알로 거대한 지도를 떠받치고 있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 지도는 1916년 각각 영국령과 프랑스령으로 획정된 경계를 반영한다. 지도 위에 배치된 아카이브 사진과 신문자료로 꾸며졌던 중동지역의 역사를 훑어나간다. 사진은 1914년의 사건에서 시작하여 2017년의 사건까지 다룬다. 영국군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제국을 꺾고 바그다드에 입성하는 모습, 프랑스군에 의해 공개처형 당하는 시리아인들, 오스만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 대학살과

죽음의 행진을 생생하게 담은 모습, 테르심과 할라브자에서 일어난 쿠르드족 대학살,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중동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비극적 역사를 맞은 팔레스타인의 '낙바(Al Naqba: 대재앙)', 미국 레이건 정부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연합,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사담 후세인의 몰락, ISIS에 의한 모술 파괴 및 시리아 공격, 공습에 붕괴된 최근 가자지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중동지역에서 벌어진 폭력과 파괴의 역사를 지도 위에 펼친다.

희망과 평화의 수사가 불러오는 전쟁의 신

전시장을 가득 채우며 한껏 고양된 선동적인 음성이 리드미컬하게 퍼진다. 이어 행진하는 군대의 팡파르 소리가 전시장을 압도하고, 호소력 짙은 지도자의 육성이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마치 전쟁 중 피난길에서 오로지 라디오에만 의존하여 바깥의 상황을 가늠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가, 도시를 탈환한 군대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 행진하며 입성하는 현장에서 있는 듯한 청각적 경험이 온몸을 관통한다. 전쟁은 전쟁터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마주하는 경험이자, 팽팽한 긴장감과 공포감이 대기 중에 퍼지며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적 선동과 선전에 완전히 압도되는 경험이기도 하다.

<허공에 차오르는 북소리를 다시 들어라: 거짓의 제국에서 진실은 곧 반역이다>(2023)는 사운드 설치조각으로 제작 기간만 1년이 소요됐다. 이 작품은 1900년대 초에 유행했던 식민지 시대 그라마폰 축음기를 폭탄의 주재료인 황동으로 주조하고, 6개월에 걸쳐 수집한 프로파간다 라디오 선전방송을 편집한 작품이다.

무겁고 단단하게 주조된 나팔 부분과 사운드박스로 구성된 이 축음기는 안팎으로 서구 식민주의를 상징했던 영국군 휘장, 이라크를 상징하는 별, 전통적인 아라베스크 모티브 위에 촘촘히 반복되는 폭탄의 이미지로 장식되었다. 축음기가 재생하는 사운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 정치에 깊이 관여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서 전송한 라디오 방송부터 이란, 쿠르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과 트럼프 정권, 그리고 ISIS에 이르기까지 지난 백 년간 중동지역에 쏟아진 프로파간다 선전방송을 망라한다.

축음기의 몸체는 전쟁이 보낸 대변자로서 군대의 휘장과 폭탄 이미지가 깊게 새겨져 있고, 축음기의 나팔에서 전쟁을 부르는 주술적 목소리가 반복해서 재생된다. 더욱이 전시장 한복판에 야지디족 영웅 '에지디 미르자(Ezidi Mirza)'의 기마상이 ISIS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을 재현하여 전쟁의

현장감을 더한다.

작품 제목처럼 작가는 거짓의 제국에서 감히 진실이라는 반역을 행하지 않지만, 거짓의 제국이 만들어내는 위선적인 레토릭이 스스로 충돌하여 깨지도록 설계했다. 홍수처럼 넘치는 거짓의 수사속에서 진실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사운드를 편집했다. 예를 들면, 평화와 안정을 외치며 전쟁 필요성을 역설하는 총리의 육성,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설과 이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그의 정반대 되는 연설을 맞붙여 편집함으로써 거짓과 거짓이 상충하며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운드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작가는 수년간 수집한 잡지, 사진, 포스터, 동전, 홍보물, 책, 엽서, 카툰 등의 아카이브 기록자료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자료들은 중동에 관여한 제국, 왕정, 정치인들의 행보와 평가를 담은 기록물들로 그 자체로 모순에 차 있다. 예를 들면 폭격기에서 우수수 포탄이 떨어지는 그림을 담은 포스터는 각 포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지"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기록사진에는 1983년 미국 정부가 보낸 도널드 럼스펠트 특사와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이 바그다드에서 만나



<그들은 우리의 세상에 그림자를 가득 드리우고서, 이제 빛을 찾으라 한다>(부분)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디지털 UV프린트, 합판, 합성페인트, 주조된 황동총알 가변 설치 2023 제공: 작가



<돌이 지배하는 먼지의 왕국>(사진 가운데) 황동 및 철제 강철 TMT 2023 제공: 작가

이란에 맞설 것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과 2003년 미국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모습이 이어진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혁'의 구호가 한국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면, 이에 준할만한 중동 정치인들의 수사는 '희망과 평화'다. 퍼포먼스 비디오 작품 <모든 희망과 평화를 끝내기 위한 희망과 평화>(2023)에서 작가는 갈라지고 마른 붓으로 흰 종이에 '희망과 평화(Hope and Peace)'라고 적는다. 검은색 글자로 화면이 가득 차 더이상 어떤 글자도 알아볼 수 없고 화면의 흰 바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작가는 '희망과 평화'를 반복해서 적는다.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 이라크에서는 건국 후 최초의 민주선거가 치러졌다. 2003년 각종 정치선전물에 인쇄된 구호, '희망과 평화'는 중동지역에도 평화가 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라크 국민을 들뜨게 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운동에서 다시 등장한 '희망과 평화'는 또다시 중동지역을 휩쓸며 각종 정치선전물에 흘러넘쳤고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무색하게 중동지역을 뒤흔든 내전, 알카에다와 ISIS의 등장,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미국의 개입이 이어지며 구호는 완전히 의미를 잃었다. 누군가의 '희망과 평화'는 또 다른 이에게 '절망과 전쟁'을 의미할 수 있다. 오히려 정치인들의

위선과 모순을 보여주고, 전쟁을 불러오는 구호가 되어 회의와 환멸을 일으키는 단어가 되었다.

220만여 개의 인간 과오를 깨내는 사람

러쉬디 안와르의 고향 할라브에서는 해마다 3월 16일이면 이라크의 화학무기 공격(1988년 3월 16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이곳은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라크 동쪽 쿠르드족의 터전이다. 1980년부터 8년간 지속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미 도시가 황폐해진 데다가 사담 후세인이 이끈 바트당이 쿠르드족이 이란에 협력했다는 것을 이유로 안팔 작전(Anfal : 전리품이라는 의미)을 수행하며 사린가스와 청산가리가 담긴 화학무기 공격으로 사망자 약 5,000명, 부상자 약 10,000명에 달하는 대량학살이 벌어진 곳이다. 작가는 이 사건으로 열네 명의 친지를 잃었다.

성서에 기술된 에덴동산 위치는 현재의 중동이다. <에덴동산의 끝없는 전쟁>(2023)은 이라크 난민수용소에서 구호품을 어깨에 지고 가는 무슬림 여성의 뒷모습, 도시를 점령한 탱크, 안팔 작전 후 난민 처지가 된 쿠르드족의 사진 위에 메소포타미아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미지와 지도, 석유 파이프라인과 신문기사 이미지를 무수히 오버랩한 뒤 표면을

그을리고 태워서 폭격과 연기와 그을음 가득한 참혹한 사진들을 표현했다.

퍼포먼스 비디오 <현재에 살아 있는 과거와의 대면>(2015)에서 작가는 사담 후세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주먹을 쥐고 구긴다. 구겨서 내팽개친 종이를 다시 손에 쥐고 조각조각 찢는다. 찢어진 조각을 하나씩 퍼서 사진을 이어 붙인다. 검은색 테이프로 대충 이어 붙인 사담 후세인의 사진을 작가는 다시 구기고, 찢고, 펴고, 이어 붙이기를 반복한다.

이라크의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은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탄압했다. 그는 한때 미국의 지지를 받았고 2003년 미국에 의해 몰락한 인물이다. 오사마 빈라덴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미디어는 사담 후세인을 중동의 영웅으로 묘사했다가 중동을 대표하는 악마적 독재자로 묘사했다. 작가는 영상에서 영웅 또는 악당인 사담 후세인의 이미지를 구기고 찢고 없애고 지워내려고 하지만 그의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담 후세인의 이미지는 각 주체가 그에게 투사하는 욕망에 따라 왜곡되고 기워졌다. 그는 처형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중동세계를 맴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220만 개가 넘는 불발 폭탄과 지뢰를 맨손으로 제거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 영상작품

<지뢰보다 강인한 남자>(2023)는 호샤르 바웰라이(Hoshiyar Byawelaia)의 삶을 기록했다. 이라크-이란 전쟁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의 주요 도시인 펜젠, 다후크, 할라브자까지 400km 이상에 달하는 지역 전체에 무수한 불발 폭탄과 지뢰를 남겼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45개 종류의 지뢰와 화학폭탄은 당시 이란 공격을 위해 사담 후세인에게 넘겨졌다. 서구가 지원한 끔찍한 살상무기로 사담 후세인은 할라브자에서 대량학살 작전을 벌였다.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폭탄세례, ISIS의 비밀폭탄 설치 등으로 이 지역에서 사람과 동물이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잃는 사고가 다반사였다. 호샤르 바웰라이는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살상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는가" 물으며 울부짖는다. 그는 지뢰 폭발로 두 다리와 동생들을 잃었고, 사고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지만 지뢰 제거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언제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예술을 하는 것이 곧 희망이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시를 쓰고, 예술을 창작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실천한다." ●



<모든 희망과 평화를 끝내기 위한 희망과 평화>(스틸) HD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37초 2023 제공: 작가



왼쪽 <지뢰보다 강인한 남자> (스틸) HD싱글채널 비디오, 20분 43초, 컬러, 사운드, 종이에 디지털프린트 2023
오른쪽 <지뢰보다 강인한 남자>이 설치된 짐 톨슨 아트센터 전시전경 2023 제공: 작가